

도시·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성장발달자산과 폭력경험을 중심으로

최정현¹⁾ · 유 미²⁾ · 방경숙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15~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2009년 기준으로 현재 인구 10만명당 15.3명으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이다(Statistics Korea, 2011).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1)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생각률은 2009년 18.9%, 2010년 19.1%, 2011년 19.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살생각은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막연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생을 끝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다(Nock et al., 2009).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흔히 가족이나 학교 상황과 관련되어 혼돈, 우울이나 절망감을 느끼고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살을 고려하게 되며, 자살생각을 한 후 1년 이내에 자살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자살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Kumar et al., 2012).

이러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은 크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울(Kumar et al., 2012), 음주·흡연 같은 건강위험행위(Kim & Yoon, 2008; Park, 2008; Song, Kang, Lee & Kwon, 2011), 가족학대(Kim,

Chung, & Lee, 2009), 학교폭력(Kim, Park, & Kim, 1996), 스트레스(Park & Moon, 2010)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관련요인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나 학교 폭력경험이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Yoon, 2008; Ozer & McDonald, 2006).

그러나 위험요인에 대한 접근은 비용 등의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에 비해 청소년들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Benson, 1997). 한편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중재하는 완충변수로서 자아존중감(Park, 2006), 사회적 지지(Kim et al., 2009), 삶에 대한 만족감(Park & Moon,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단편적으로 연구되거나 몇 가지 변인만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내적, 외적으로 포괄적인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호요인 중 성장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긍정적 경험을 포함하는 외적자산(지지, 역량함량, 주변의 범위와 기대, 건설적인 시간사용), 그리고 청소년이 성장발달시기에 갖추어야 할 인성적 자질을 포함하는 내적자산(학습의 열의,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합적 보호요인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Benson, 1997). 따라서 성장발달자산을 강화시키는 것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Wang, Chen, Tang, Lee, & Jian, 2011). 이제까지 성장발달자산에 대

주요어 : 고등학생, 자살생각, 성장발달자산, 폭력

1)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yumichonsa@nsu.ac.kr)

3)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접수일: 2013년 1월 2일 1차 수정일: 2013년 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3 2월 5일

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발달자산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Lee, 2005a)와 발달자산과 건강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Lee, 2005b), 발달자산과 부모태도에 관한 연구(Jung, 2009) 등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며, 더구나 의학 및 교육학 관련 연구이외에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도시와 농촌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점점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다른 도시와 농촌 고등학생은 자살생각의 수준도 다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해 지역에 따른 차이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Kim & Yoon, 2008; Song et al., 2011). 또한 자살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져 농촌 지역 청소년의 자살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Song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위험요인으로는 가족학대와 학교폭력을, 보호요인으로는 성장발달자산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살생각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장발달자산, 자살생각 수준을 파악한다.
-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다.
-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에 따라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의 2개교, 충남·경기 농촌지역의 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착수하였다. 표본크

기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방법을 적용해 연구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 크기는 유의수준(α) 0.05, 효과크기(f^2)를 0.15 (medium), 검정력($1-\beta$) 0.8로 두고 예측변인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을 때 123명이었고 유의수준(α) 0.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02 (small)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85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효과크기 0.02-0.15 사이의 중간정도로 두고 탈락률과 작성오류 등을 고려하여 총 8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충분한 응답자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713명(89.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막연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생을 끝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다(Nock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Reynolds (1998)의 자살생각척도를 Park (2006)이 수정 보완한 15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 청소년 성장발달자산

청소년 성장발달자산이란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 및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청소년 성장발달시기에 내적 및 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로(Benson, 1997), 본 연구에서는 Scales (1999)에 의해 개발된 성장발달자산 모형의 개념적 정의를 적용하여 Jung (2009)이 수정 보완한 46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성장발달자산은 외적, 내적 발달자산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외적자산은 청소년들과 부모, 학교, 친구 등 사회적 관계나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지 7문항, 역량함양 6문항, 범위와 기대 5문항, 건설적인 시간활용 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자산은 청소년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으로 학습열의 5문항, 긍정적 가치관 6문항, 사회적 능력 7문항, 긍정적 정체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자산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외적자산의 하위영역인 지지 .84, 역량함양 .71, 주변인의 범위와 기대 .66, 건설적 시간활용 .47이었고, 내적자산 하위영역인 학습열의 .76, 긍정적 가치관 .75, 사회적 능력 .78, 긍정적 정체감 .86 이었다.

● 부모학대경험

부모학대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은 Straus와 Douglas (2004)의 Conflict Tactics Scale (CTS)척도를 Kim 등 (2009)이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총기사용 등의 문항을 제외한 8가지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 즉 심한 욕설을 비롯하여 물건을 이용해 맞거나 밀친 경우를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8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전혀없다' 1점, '1년에 한 두번' 2점, '주 1회 이상' 3점, '거의 매일'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다.

●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급우나 선배로부터 폭언, 따돌림, 고의적 괴롭힘, 돈이나 물품을 빼앗기거나 협박을 당한 것으로(Kim et al., 1996), Koh (2006)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묻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강제적인 심부름, 물건이나 돈을 빼앗은 것과 같은 금품갈취, 폭행, 폭언,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6문항으로 '전혀 없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2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선정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학교교장과 학년부장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허가를 얻었으며 지정해준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그 자리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교사가 수거하여 우편발송하도록 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NSU-522) 자료수집 대상 고등학교의 학교장 혹은 학년부장에게 자료수집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다음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 익명성 및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과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철회가 가능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학용품을 선물로 제공하였으며, 설

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지역에 따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위험행태의 빈도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χ^2 test를 이용하였다. 지역에 따른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성장발달자산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지역에 따른 대상자의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진단한 결과 도시학생들은 공차한계의 범위가 0.75~0.99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의 범위는 1.01~1.33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석 결과 Durbin-Watson 결과는 1.96로 나타났다. 농촌학생들은 공차한계의 범위가 0.81~0.96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의 범위는 1.04~1.23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Watson 결과는 1.82로 나타나 도시 및 농촌학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연구 결과

도시·농촌지역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모두 713명으로 도시지역 고등학생은 373명(52.3%)이었고, 농촌지역 학생은 340명(47.7%)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도시고등학생은 1학년 68.1%였고, 농촌고등학생은 2학년 56.8%로 가장 많았다($\chi^2=117.40, p<.001$). 아버지 교육수준은 도시는 대졸이상 79.4%인 반면 농촌은 고졸이하가 74.7%로 유의한 차이($\chi^2=209.02, p<.001$)를 보였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도시는 대졸이상 67.0%인 반면 농촌은 고졸이하가 82.6%로 유의한 차이($\chi^2=178.71, p<.001$)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은 도시고등학생은 상류층 16.8%인 반면 농촌고등학생은 상류층 3.3%로 유의한 차이($\chi^2=54.94, p<.001$)를 보였다. 흡연율은 도시고등학생이 14.0%인데 반해 농촌고등학생은 38.3%로 유의한 차이를($\chi^2=55.02, p<.001$)보였다. 음주율은 도시고등학생은 56.0%인데 반해 농촌고등학생은 78.2%로 유의한 차이를($\chi^2=39.43, p<.001$) 보였으며 성관계 비율은 도시고등학생이 0.9%인데 반해 농촌고등학생은 3.8%로 유의한 차이를($\chi^2=6.55, p=.016$) 보였다. 그러나 성별, 자원봉사경험, 학교성적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Area

(N=713)

Variables	Categories	Urban students	Rural students	χ^2 (<i>p</i>)
		n (%)	n (%)	
		373 (52.3)	340 (47.7)	
Gender	Male	94 (25.2)	98 (28.9)	1.24 (.273)
	Female	279 (74.8)	241 (71.1)	
Grade	1st	254 (68.1)	121 (35.6)	117.40 (<i><.001</i>)
	2nd	66 (17.7)	193 (56.8)	
	3rd	53 (14.2)	26 (7.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77 (20.6)	254 (74.7)	209.02 (<i><.001</i>)
	≥College	296 (79.4)	86 (25.6)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23 (33.0)	281 (82.6)	178.71 (<i><.001</i>)
	≥College	250 (67.0)	59 (17.4)	
Economic status	High	62 (16.8)	11 (3.3)	54.94 (<i><.001</i>)
	Middle	293 (79.4)	271 (81.6)	
	Low	14 (3.8)	50 (15.1)	
Volunteer experience	Yes	320 (85.8)	292 (85.9)	.01 (<i>>.999</i>)
	No	53 (14.2)	48 (14.1)	
School record	High	54 (14.7)	43 (12.9)	5.79 (.055)
	Average	222 (60.5)	180 (54.1)	
	Low	91 (24.8)	110 (33.0)	
Smoking	Yes	52 (14.0)	130 (38.3)	55.02 (<i><.001</i>)
	No	319 (86.0)	209 (61.7)	
Alcohol use	Yes	209 (56.0)	266 (78.2)	39.43 (<i><.001</i>)
	No	164 (44.0)	74 (21.8)	
Sexual intercourse	Yes	3 (0.9)	12 (3.8)	6.55 (.016)
	No	348 (99.1)	304 (96.2)	

No responses are excluded.

지역에 따른 자살생각 수준, 자살생각 경험, 부모학대, 학교폭력, 성장발달자산 차이

지역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비교는 Table 2와 같다. 자살생각의 평균점수는 도시고등학생이 1.99±0.94점, 농촌고등학생이 2.23±1.00점으로 농촌고등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3.35, p=.001$).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도 농촌고등학생의 23.8%, 도시고등학생의 15.5%로 농촌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농촌고등학생이 도시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22, p=.027$). 성장발달자산 총 평균은 도시고등학생이 농촌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7.59, p<.001$), 성장발달자산의 하위영역인 지지, 역량함량, 주변인의 기대와 범위, 건설적 시간활용, 학습열의,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 등 모든 영역에서 도시고등학생의 평균이 농촌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성장발달자산 중 가장 높은 하부영역은 두 지역 모두 정체감(도시지역 3.79±.66점, 농촌지역 3.48±.72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건설적 시간활용(도시지역 2.64±.72점, 농촌지역 2.51±.76점)이었다. 그러나 부모학대에서는 도시고등학생과 농촌고등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도시고등학생과 농촌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비교

도시고등학생과 농촌고등학생을 각각 분류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도시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2.40, p=.017$), 흡연여부($t=3.02, p=.003$)였다. 즉, 여학생의 자살생각이 2.06±.95점으로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군의 자살생각이 2.36±1.02점으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4.64, p<.001$), 경제적 상태($F=7.10, p=.001$), 학교성적($F=5.51, p=.004$), 흡연여부($t=3.09, p=.002$), 상관계 경험여부($t=3.67, p=.003$)였다. 즉, 여학생의 자살생각이 2.39±1.01점으로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하류층 농촌학생의 자살생각이 2.62±1.10점으로 상류층·중류층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자살생각이 2.46±1.08점으로 성적우수학생에 비해 높았고 흡연자의 자살생각이 2.45±1.05점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높았다. 상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살생각은 3.03±.75점으로 상관계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성장발달자산, 폭력경험 및 일반적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흡연유무, 경제수준,

Table 2. Comparison of Suicidal Ideation, Family Abuse, School Violence and Developmental Assets by Two Areas (N=713)

Variables		Total (n=713)	Urban students (n=373) Mean ±SD or n (%)	Rural students (n=340)	t or χ^2	p
		Suicidal ideation	2.11±.98	1.99±.94	2.23±1.00	-3.35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Yes	139 (19.5)	58 (15.5)	81 (23.8)	7.76	.006
	No	574 (80.5)	315 (84.5)	259 (76.2)		
Family abuse		1.27±.42	1.26±.38	1.28±.47	-0.70	.488
School violence		1.12±.32	1.09±.26	1.14±.37	-2.22	.027
Developmental assets						
Total		3.27±.49	3.40±.45	3.13±.49	7.59	<.001
Support		3.39±.71	3.53±.68	3.23±.72	5.69	<.001
Empowerment		2.91±.62	3.06±.60	2.75±.60	6.93	<.001
Boundaries and expectations		3.33±.62	3.48±.60	3.17±.60	6.73	<.001
Constructive use of time		2.58±.74	2.64±.72	2.51±.76	2.37	.018
Commitment to learning		2.90±.75	3.06±.70	2.71±.76	6.39	<.001
Positive values		3.55±.60	3.67±.54	3.43±.64	5.48	<.001
Social competencies		3.51±.58	3.60±.56	3.41±.59	4.53	<.001
Positive identity		3.64±.70	3.79±.66	3.48±.72	5.96	<.001

Table 3. Comparison of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wo Areas

Variables		Urban students (n=373)		Rural students (n=340)	
		Mean ±SD	t (p) or F (p)	Mean ±SD	t (p) or F (p)
Gender	Male	1.79±0.90	-2.40	1.85±0.88	-4.64
	Female	2.06±0.95	(.017)	2.39±1.01	(<.001)
Grade	1st	2.03±0.99	0.87	2.33±1.02	1.36
	2nd	1.87±0.87	(.419)	2.20±0.98	(.259)
	3rd	1.94±0.81		2.01±1.02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99±1.04	-0.04	2.26±1.00	0.83
	≥College	1.99±0.92	(.967)	2.16±0.98	(.410)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2.00±0.97	-0.52	2.27±1.00	1.32
	≥College	2.01±0.93	(.601)	2.08±0.97	(.189)
Economic* status	High	1.99±0.94	0.65	1.54±0.67 ^a	7.10
	Middle	1.98±0.96	(.523)	2.18±0.97 ^b	(.001)
	Low	2.27±1.14		2.62±1.10 ^c	b,c>a
Volunteer experience	Yes	1.99±0.94	-0.16	2.25±0.99	0.82
	No	2.01±0.97	(.875)	2.13±1.03	(.415)
School* grade	High	1.95±0.79	0.94	1.91±0.90 ^a	5.51
	Middle	1.95±0.95	(.392)	2.17±0.94 ^b	(.004)
	Low	2.10±1.01		2.46±1.08 ^c	c>a
Smoking	Yes	2.36±1.02	3.02	2.45±1.05	3.09
	No	1.93±0.92	(.003)	2.11±0.94	(.002)
Alcohol use	Yes	2.01±0.93	0.52	2.27±1.01	1.12
	No	1.96±0.95	(.603)	2.12±0.97	(.262)
Sexual intercourse	Yes	2.79±0.36	3.78	3.03±0.75	3.67
	No	1.99±0.94	(.053)	2.21±1.01	(.003)

* : Scheffe test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Suicidal Ideation by Area

Region	Variables	B	S.E.	β	t (p)	F/p	Adj. R ²
Urban	Support	-.36	.07	-.26	-4.90 (<.001)	24.28 (<.001)	.26
	School violence	.93	.22	.22	4.21 (<.001)		
	Gender*	.35	.10	.16	3.34 (.001)		
	Family abuse	.37	.14	.14	2.68 (.008)		
	Positive identity	-.19	.08	-.13	-2.44 (.015)		
Rural	Family abuse	.62	.11	.28	5.74 (<.001)	28.01 (<.001)	.31
	Gender*	.59	.12	.26	5.08 (<.001)		
	Positive identity	-.35	.07	-.25	-4.88 (<.001)		
	Smoking†	.30	.11	.15	2.76 (.006)		
	Empowerment	-.30	.10	-.18	-3.30 (.001)		

*Gender (1: female, 0: male), † Smoking (1: yes, 0: no).

학교성적, 성관계경험, 성장발달자산 하부영역, 가족학대, 학교폭력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도시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지($\beta=-.26, p<.001$), 학교폭력($\beta=.22, p<.001$), 성별($\beta=.16, p=.001$), 가족학대($\beta=.14, p=.008$), 정체감($\beta=-.13, p=.015$)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26%를 설명하였다. 한편 농촌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학대($\beta=.28, p<.001$), 성별($\beta=.26, p<.001$), 정체감($\beta=-.25, p<.001$), 흡연경험($\beta=.15, p=.006$), 외적역량($\beta=-.18, p=.001$)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31%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발달자산과 폭력경험의 측면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도시고등학생과 농촌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 전체의 자살생각의 수준은 5점 척도에서 2.11점이었으며 농촌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이 도시고등학생의 자살생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Park과 Chung (2010)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이 2.02점으로 나타난 것과 Kim과 Yoon (2008)의 연구에서 농촌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도시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농촌은 교육여건과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약간의 경제적 여건만 되어도 도시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 남아있는 농촌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대도시 청소년에 비해 각종 문제행동의 발생 비율도 높아(Kim, Oh, & Kim, 2006) 자살생각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19.5%가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농촌고등학생(23.8%)들이 도시고등학생(15.5%)들보다 더 경험이 많았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연구에서 자살생각

이 19.6%로 나타난 것과 거의 동일하며(KCDC, 2011), Ryu (2008)의 연구에서 농촌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자살 경험률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So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38.0%)과 농촌지역(39.0%) 간에 자살생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1개 문항으로 조사한 것으로, 측정도구와 방법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농촌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지역 청소년 대상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3년도부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무료 정신치료서비스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농촌지역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Money today internet news, 2012)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둘째, 도시고등학생들과 농촌고등학생들의 성장발달자산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지지, 역량함량, 주변인의 기대와 범위, 건설적 시간활용, 학습열의,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 등 모든 항목에서 도시고등학생이 농촌고등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생에 비해 학업 성취감 및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는 연구(Park,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학부모는 자녀 교육과 성장에 관심이 많아 자녀 교육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 교사의 수업의 질과 교육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촌은 거점학교 육성 및 농촌 우수고 육성사업 등 농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및 학생들의 삶의 질은 도시학교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Park, 2007), 그로인해 삶에 대한 시각과 세상과의 소통이 한정적 이어서 성장발달자산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창의적 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종교 활동으로 구성된 건설적 시간활용은 도시·농촌 고등학생 모두 성장발달자산 중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이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05a)

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활동이 높은 수준의 보유율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은 대학진학이라는 중요한 관문이 있어 다양한 창의적 문화 활동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흡연여부였다. 성별에서 여학생의 자살생각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Park & Moon, 2010; Song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소녀와 여성의 경계선에 있는 여고생은 실제 자살의도가 있다기보다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성숙함으로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성향이 있고 주변의 스트레스에 대한 절박함을 알려려는 신호로서 자살을 떠올릴 수도 있다(Kim et al., 2009). 이는 여학생을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흡연에서 흡연군의 자살생각이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자살시도 위험이 3.19배 높았고 Song 등(2011)의 연구에서 흡연자의 자살생각이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청소년기 흡연은 건강상의 위험요인 일뿐만 아니라 자살생각과 같은 청소년 일탈행위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Daniel & Goldston, 2009) 금연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자살생각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시고등학생의 경우 지지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고 학교폭력, 성별, 가족학대, 긍정적 정체감 등 5개 요인이 자살생각을 26% 설명하였다. 농촌고등학생은 이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가족학대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고, 성별, 정체감, 흡연경험, 외적역량 등 5개 요인이 자살생각의 31%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고등학생 모두 성별, 가족학대, 긍정적 정체감이 자살생각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수라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일수록, 가족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Kim et al., 2009; Kim & Yoon, 2008). 특히 내적 성장발달자산인 긍정적 정체감은 도시와 농촌 고등학생 모두에서 자살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배우는 시기이고 이후 성인기에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 요소(Law, Siu, & Shek, 2012)인 자아정체감이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표로 생각한다.

도시학생의 자살생각 예방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는 외적 성장발달자산인 지지가였다. 즉 도시학생에게 가족, 이웃, 학교에서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결

과는 Kumar 등(2012)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게 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 농촌고등학생에 비해 학업 경쟁률이 치열하고 강도 높은 학교수업에 매달려 있는 도시고등학생들에게 부모의 지지와 의사소통, 학교의 지원은 자살생각과 같은 절망적 생각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생각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지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농촌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학대였다. 이는 Kim과 Lee (2008) 연구에서 부모 간에 발생하는 가족폭력을 목격하는 간접 경험이 농촌 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가족폭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무관심과 방관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절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학대 예방을 위한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 뿐 아니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장발달자산, 가족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특히 자살예방을 위한 선별검사와 종합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도시·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 성장발달자산, 학교폭력, 가족폭력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지역과 충남경기 농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갖은 고등학생이 19.5%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이며 특히 도시보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정신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도시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지, 학교폭력, 성별, 가족학대, 정체감로 나타난 반면 농촌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학대, 성별, 정체감, 흡연경험, 외적역량으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농촌고등학생은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은 높고 보호요인은 낮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살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자들의 자살생각에 성장발달자산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성장발달자산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족, 학교, 지역 사회가 긍정적인 발달자산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enson, P. L. (1997). *All kids are our kids: What communities must do to raise caring and responsible children and adolesc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Daniel, S. S., & Goldston, D. B. (2009). Interventions for suicidal you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 252-268. <http://dx.doi.org/10.1521/suli.2009.39.3.252>
- Jung, C. W. (2009). The relationship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with their developmental asse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2), 23-43.
- Kim, J. Y., Chung, Y. K., & Lee, J. S.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ive relationship in the contribu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domestic child abuse to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1, 119-144.
- Kim, J. Y., & Lee, I. S.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behavioral maladjustment of youth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urban and rural areas;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Victimology*, 16(1), 199-228.
- Kim, J. K., Oh, H. S., & Kim, J. M. (2006). Analysis in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for rural youth.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13, 85-97.
- Kim, J. H., Park, C. S., & Kim, E. K. (1996). A study on violence around the schoo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Report Series*, 1-272.
- Kim, J. J., & Yoon, M.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4(4), 77-102.
- Koh, H. S. (2006).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school violence-focused on Namwo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Jeonbuk.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The 7th Korean National Adolescent Health Behavior* available from <http://schoolhealth.kedi.re.kr>
- Kumar, M. B., Walls, M., Janz, T., Hutchinson, P., Turner, T., & Graham, C. (2012). Suicidal ideation among Metis adult men and women - associa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Circumpolar Health*, 6(71), 1-11. from <http://dx.doi.org/10.3402/ijch.v71i0.18829>
- Law, B. M., Siu, A. M., & Shek, D. T. (2012). Recognition for positive behavior as a critical youth development construct: Conceptual bases and implications on youth service development. *Scientific World Journal*, Article ID 809578, 1-7.
- Lee, M. S. (2005a). Developmental assets among Korean youth.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18, 47-72.
- Lee, M. S. (2005b). The protective effects of development assets on health risk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4), 137-154.
- Money today internet news (2012, September 20). *The government will start free psychological checkup for adolescence next year*. Retrieved October, 20, 2012, from <http://m.mt.co.kr/new/view.html?no=2012091815283620832>
- Nock, M. K., Hwang, I., Sampson, N., Kessler, R. C., Angermeyer, M., Beautrais, A., et al. (2009).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s among mental disorders and suicidal behavior: Findings from the WHO World mental health surveys, *PLoS Medicine*, 6(8), 1-17.
- Ozer, E. J., McDonald, K. L. (2006). Exposure to violence and mental health among Chinese American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 73-79.
- Park, B. G. (2006). *Exploratory study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Park, E. O.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8, 465-473.
- Park, J. S., & Moon, J. W. (2010).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7, 105-131.
- Park, J. Y., & Chung, I. J. (2010).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problems on suicidal ideation-focusing on the mediational effects of individual leve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2, 69-97.
- Park, S. C. (2007). Impacts of school variables that determine quality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chool lif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5(4), 141-162.
- Reynolds, W. M. (199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yu, J. K. (2008). Regional differentials in elderly suicide rate: The focusing on effects of family stability, 1995-2005.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2), 21-44.
- Scales, P. C. (1999). Reducing risks and building developmental asset: Essential actions for promoting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School Health*, 69(3), 113-119.
- Song, S. H., Kang, C. Y., Lee, T. Y., & Kwon, I. S. (2011).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Agriculture Medicine Community Health*, 36, 1-12.
- Statistics Korea (2011). *Estimated population*. Seoul: Author.

Straus, M. A., Douglas, E. M. (2004). A short form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and typologies for severity and mutuality. *Violence and Victims, 19*(5), 507-520.

Wang, R. H., Chen, S. W., Tang, S. M., Lee, S. L., & Jian, S.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developmental assets and health-promoting behaviours of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3-4), 359-368. from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10.03459.x>

A Study on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Urban and Rural Area-Focused on Developmental Assets and Violence

Choi, Jung Hyun¹⁾ · Yu, Mi¹⁾ · Bang, Kyung Sook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uicidal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Methods:** For this research two urban and two rural high schools in four cities were chosen. The participants were 713 students (373 in the urban area, 340 in the rural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1 to July 31, 2012. Data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8.0. **Results:** Results showed that 19.5% of respondents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the past 1 yea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and developmental assets between the two are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upport, school violence, gender, family abuse, constructive use of time, and positive ident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26% of suicidal ide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s.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family abuse, gender, positive identity, smoking and empower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31% of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implementation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in which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se factors, and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students would be helpful in reducing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Students, Suicidal ideation, Development, Viol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u, Mi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91,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city, Choongnam, 330-707, Korea

Tel: 82-41-580-2717 Fax: 82-41-580-2931 E-mail: yumichonsa@nsu.ac.kr